

종교 대립에서 ‘신의 전쟁’으로…파란만장한 세계 역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신의 전쟁

도현신 지음

다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힌두교...

인류가 시작된 이래 종교는 신앙의 공동체, 문화적 체계로 자리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종교적 가치가 그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종교는 대립과 충돌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다. 법박하게 세계 역사를 말하면 종교전쟁의 역사다. 서로 다른 종교, 종파와의 대결은 피를 부르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도현신 작가는 종교의 전쟁을 ‘신의 전쟁’으로 규정한다. 종교의 대립이 결국 신의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 작가가 펴낸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신의 전쟁’은 신을 위한 전쟁에서 신을 지키는 항전까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지금까지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과 문장으로 풀어냈다. ‘전쟁이 발명한 과학기술의 역사’, ‘기루전쟁’ 등은 전쟁과 역사를 인문학적으로 조망한 책들이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일부 개신교 단체가 봉축법요



식이 열린 조계사 근처에서 불교연등 철거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 눈살이 찌뿌러지는 장면이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이며 절대선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종교와 사람을 탄압하거나 무례를 범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인류 역사에 있어 그러한 예는 수없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인류 최초의 종교 전쟁으로 마카베오 전쟁을 꼽는다. 기원전 166년 셀레우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교 율법을 금지했다. 마카베오 유다는 비록 싸우다 전사했지만 그의 동생 요나단과 시몬이 지도자가 됐다. 이후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셀레우코스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이룬다.



안티오코스 4세의 초상이 들어간 은화.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교를 금지해 ‘다니엘서’에서 ‘사악한 악마’로 칭해졌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은 제국에 맞선 절대적 신앙과 연관된다. 오직 야훼만이 절대자이며 신이라 믿었던 이들은 로마에 대항해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높은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 세금을 걷는 세리를 증조했다. 또한 기회만 생기면 로마인을 암살하거나 반란을 도모했다.

서기 66년 두 세력의 충돌로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일어난다. 유대는 다수의 병력과 무기를 갖춘 로마군을 대항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전쟁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고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 로마가 밝힌 유대인 시신은 11만5800구이며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에서 120만 명 유대인이 죽었다고 기록한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에는 기사단이 존재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시달렸다. 이슬람교의 위협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이들이 바로 기독교 기사단이었다. 소아시아 일대를 다스리던 오스만제국은 기사단이 눈엣가시였다. 국가도 아닌 일개 기사단에 연거푸 패배를 한 오스만제국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1차 로도스섬 전투에서 기사단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 기독교 국가들은 동유럽을 무너뜨린 오스만제국에 맞서 승리한 기사단을 열렬히 환호했다. 그러나 2차 전투에서 오스만의 술탄 술레이만 1세는 대군을 이끌고 로도스섬을 공격했다. 기사단은 이슬람교에 맞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중세 유럽 기독교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교도가 아닌 이단 교파였다. 같은 기독교에서 갈



셀레우코스왕조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마카베오 가문(폴란드화가 알베르트 코넬 새틀러의 1844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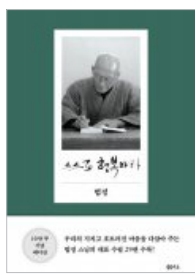
라져 나왔지만 전통 교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름이 끊이지 않았다. 11세기 프랑스 남부 도시 알비에에는 기독교 이단 종파인 알비파가 나타났다. 가톨릭 교황청은 알비파를 상대로 십자군전쟁을 선포한다. 마침내 1243년 알비파 신도의 요새가 함락됨으로써 알비파 십자군 전쟁은 막을 내린다.

그렇다면 평화를 지향한다는 종교는 왜 싸움을 하는 걸까? 저자는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종교가 삶과 문화의 중요한 기준 때문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즉 “자신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자신의 삶과 문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겼고, 그런 갈등이 전쟁으로 번졌다고 봐야 옳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다복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지음

법정스님(1932~2010)은 1976년 첫 산문집 ‘무소유’를 발간했다. 이후 ‘새들이 떠난다 숲은 적막하다’, ‘오두막 편지’ 등 맑고 깊은 사색이 담긴 주옥 같은 에세이집을 여러 권 펴냈다. 그러나 살아생전 그동안 풀어놓은 ‘말뚝’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대부분 책이 절판되었던 탓에 스님의 글을 좋아하는 많은 이들은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후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유지를 받은 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출판사와 협의



를 통해, 대표수필을 엮은 ‘스스로 행복하라’를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스스로 행복하라’는 10만 부 출간을 기념해 나왔다.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지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나온 스님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은 없다.”는 말. 한번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되짚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라는 이 법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기운이 솟는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가다.”

법정스님은 현재의 중요성을 그렇게 일깨웠다. 지나가버린 과거나 언제 올지 모를 미래에 얽매어 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얘기다.

또한 스님은 일상에서 간헐 많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가진 것만큼 행복하냐?” 스님은 몸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깊은 사유와 진리가 담긴 말로 울림을 주었다. “사람의 심성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게 고인다. 퍼내지 않으면 흐리고 상한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번쯤 되새겼으면 하는 구절이다.

<샘터·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존재방식의 미학

김낙중 지음

‘기능, 구조, 재료 등 현실을 토대로 한 건축 요소들의 진솔함과 합리성을 토대로 시적인 순간을 빛내는 것을 건축이다.’ ‘압구정 CGV’, ‘서울대학교 기숙사’ 등 건축 작품을 만든 김낙중 건축가의 말이다. 이번에 김낙중 건축가가 펴낸 ‘존재방식의 미학’은 건축의 보편성과 구축성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5년 건축대에서 정년 퇴임 후 ‘도시 풍경 개인전’을 비롯해 꾸준한 회화작업으로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책은 아름다움과 존재, 진실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 과정을 예술작품과 역사의 흐름으로 되짚어보며 건축에서 찾아낸 근본 요소에 관해 이야기한다. 때로는 철학자처럼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미학자의 눈으로 설명한다. 한편으로 담론이나 이론이 아닌, 건축가 루이스 칸의 작품에서 보이는 디테일을 토대로 그것을 해석하며 건축의 다양성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책은 철학적인 단상과 미학적인 시각이 중첩돼 있어 지적인 포만감을 준다. 특히 건축의 토대인 건설, 재료 등의 물질을 다루는 방식 외에도 사고체제와 건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 건축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몇몇의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어 건축적 사고의 과정은 물론 시대와 세대를 가로지르며 달려 온 건축가의 삶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저자는 “모든 사물은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갖추어서 존재한다. 즉, 모든 사물은 존재근거와 존재형식을 통해 세계 내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갖게 된다. 존재근거는 무형적 내용이고 존재형식은 유형적 형태”라고 설명한다.

<픽셀하우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의 죽음, 시대의 고발

안치용 외 14명 지음

우리 사회의 전 세대는 일제 식민, 광복, 분단, 독재, 산업화, 민주화 등의 시절을 함께 통과해 왔다. 굴곡 많은 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삶의 양상은 세대별로, 개인별로 다양했다. 누군가 불의한 세력과 타협할 때 어떤 청년은 분노했고, 누군가 뒤돌린 사회구조에서 이익을 취할 때 어떤 청년은 몸을 던져 항거했다. 누군가 그 구조를 방관하는 동안 어떤 청년은 힘없이 꺾이고 당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 희망을 찾지 못해 자살을 택하는 또 다른 청년들이 있다.



격변의 한국 현대사에서 변곡점이 된 청년의 죽음을 다룬 신간 ‘청년의 죽음, 시대의 고발’이 발간됐다.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활동하는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의 안치용 이사장과 강우정, 김민주, 김유라, 노수민 등 바람저널리스트 14인의 합작이다.

책에서 다뤄진 ‘청년의 죽음’은 194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80년 한국 역사를 비추는 프리즘으로 작용한다. 각 시대별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찰한 기록물인 셈이다. 간도에서 태어나 민족의 별이 된 시인 윤동주, 만민투위 조사원 김철호, 1960년 마산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른 열일곱 살 청년 김주호 등을 비롯해 전태일, 김경숙, 윤상원, 이한열, 신승희·박지영 등의 이야기를 실었다.

안치용 이사장은 “이 책은 스러져간 청년들의 원통한 죽음에 대한, 애끓는 조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의 꿈과 고민, 가치관에 주목하게 되는 이때, 오늘을 사는 청년의 눈으로 역사 속 청년의 삶과 죽음을 짚어본 유익미한 기획이다”고 전한다.

<내일을여는책·2만2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능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슬기로운 광주 탐구

광주학 光州學

- 광주학, 어디까지 왔나?
- 광주를 담은 책들
- 전문가가 말하는 '광주학 발전 과제'
- 대중가요에 비친 광주

기획

'이건희 컬렉션' 기증으로

그리웠던 걸작들 예향 찾아온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

부드럽게 흐르는 예술의 언덕

스페이스K 서울

클릭, 문화현장

스테인드글라스 불화, 로터스 갤러리

예술향기 그윽한 사찰

무각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회극인의 길 47년 철순의 현역 개그맨 이용식

에향 초대석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감독 이정국

"5월 광주는 내 영화인생의 원동력"

문화 트렌드

한복의 전통과 진화

보여주는 두 전시

전시 화제

'Save Myanmar'

광주의 뜨거운 예술 연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①-프롤로그

천년고찰이 품은 시간과 이야기 속으로

씨름싸움 남도 한 바퀴-목포

임안 유적, 근대 역사 공간

목포 시간여행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의 흔적
- 바다식민지의 명소